

■ 주요 뉴스: 트럼프, 이란과의 종전 협상안 최종결정 지연 이란은 트럼프 비난 지속

- 미국, USMCA 협상에서 자국의 자동차 부품 비중 50% 요구 계획
- 美 연준 보우먼 부의장, 에너지발 인플레이 장기화시 추가 대응 필요
- IEA, 주요국의 에너지원 다각화로 금년 천연가스 투자 10년래 최대치
- 이스라엘, 가자지구와 레바논에 대한 군사 공격 확대
- UN, 이스라엘과 러시아를 성폭력 블랙리스트에 추가

■ 국제금융시장: 주가 상승[美 +0.2%], 달러화 약세[-0.1%], 금리 하락[-1bp]

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중동전쟁 합의 기대감과 기술주 강세 등으로 상승
유로 Stoxx600은 은행 등의 금융주가 고금리 유지 기대감으로 강세
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으로 약세
유로화는 0.1% 강세, 엔화는 보합
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미국-이란 협상 기대감을 반영
독일은 미국 국채시장 영향 등으로 2bp 하락

※ 뉴욕 1M NDF 증가 1506.6원(스왑포인트 감안 시 1507.7원, 0.01% 하락). 한국 CDS 보합

		5.29일	전일대비			5.29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7,580.1	+0.22%	국채 금리 10y	미국	4.44%	-1bp
	유럽	626.00	+0.14%		독일	2.94%	-2bp
	일본	66,330	+2.53%		일본	2.67%	-3bp
	한국	8,476.2	+3.55%	CDS	한국	22bp	+0bp
환율	달러지수	98.94	-0.08%	위험 지표	VIX	15.32	-2.67%
	유로화	1.1659	+0.07%		브렌트유	92.05	-1.77%
	엔화	159.27	-0.02%	원자재	금	4,540.3	+1.00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600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환율은 +(-)는 강세(약세).

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트럼프, 이란과의 종전 협상안 관련 최종 결정 지연. 이란은 트럼프 비난 지속

-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상황실에서 종전 협상을 위한 회의를 가졌으나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못함. 미국 행정부 관계자는 이란과의 합의에 근접하였으나 금융제재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
-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곧 회의를 개최할 것이며 이란과의 합의가 임박했다고 설명. 또한 호르무즈 해협은 즉시 개방돼야 하고 미국 역시 이란에 대한 해상봉쇄를 해제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한편, 이란은 핵무기 개발 포기에 동의해야 한다고 강조
- 반면, 이란은 준관영 파르스통신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조작된 승리를 언급하고 있다며 반박. 미국의 대이란 봉쇄가 먼저 해제돼야 하며, 현재 합의문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를 받지 않겠다는 조항이 없다고 설명
- 이란은 미국이 120억달러의 자산동결을 먼저 해제해야 하며, 핵무기 개발 포기에 대해서도 양측의 의견이 다르다고 강조. 또한 미국과의 협상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기존 서방 언론의 보도에도 오류가 있다고 언급
- 이에 Reuters는 최종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나, 핵심 쟁점에 대한 양국의 이견도 상당하여 불완전한 합의가 될 수 있다고 우려. Times는 현재 합의안은 최종안이 아닌 초안에 가까우며 주요 쟁점에 대한 결정이 뒤로 미뤄지고 있다고 설명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美 연준 보우먼 부의장, 에너지발 인플레이 장기화시 추가 대응 필요

- 보우먼 부의장은 에너지 가격 상승이 단기에 그칠 경우 통화정책이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으나, 중동전쟁 장기화로 하반기까지 충격이 지속되어 운송, 생산, 서비스 등의 가격이 오를 경우 정책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발언
- 또한 AI 투자 확대는 단기적으로 공급망 부담 요인이나, 장기적으로는 생산성을 향상시켜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

■ 미국, USMCA 협상에서 자국의 자동차 부품 비중 50% 요구 계획

- 미국은 북미에서 생산되는 자동차가 미국·멕시코·캐나다협정(USMCA)에 따른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역내 부품 비중을 82%로 높이고, 그 중 절반은 미국산이어야 한다는 방안을 추진 중. 이를 위해 미국 무역대표부는 멕시코와 원산지 규정을 협상 중이며, 캐나다에 수용 여부를 문의할 계획

■ 이스라엘, 가자지구와 레바논에 대한 군사 공격 확대

-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레바논 남부 요충지인 리타니강을 넘어 헤즈볼라에 대한 군사작전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. 또한 작년 10월 하마스와의 휴전 합의에서 가자지구의 50%를 통제하기로 합의했으나, 이를 70%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언급

■ UN, 이스라엘과 러시아를 성폭력 블랙리스트에 추가

-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분쟁 관련 성폭력 보고서에 이스라엘군과 러시아군의 성범죄를 명시. 이에 주UN 이스라엘 대사는 현실과 동떨어진 결정이라며 구테흐스 사무총장과의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반박

■ 캐나다 1분기 경제성장률 전년비 0.1% 감소, 예상치 하회

- 캐나다의 1분기 GDP 증가율이 -0.1%로 예상치(1.5%)를 크게 하회하면서 작년 4분기 -1.0%에 이어 2개분기 연속 역성장. TD Economics는 교역이 위축되는 가운데 기업의 투자도 감소했다면서 기술적 경기침체를 우려

■ IEA, 주요국의 에너지원 다각화로 금년 천연가스 투자 10년래 최대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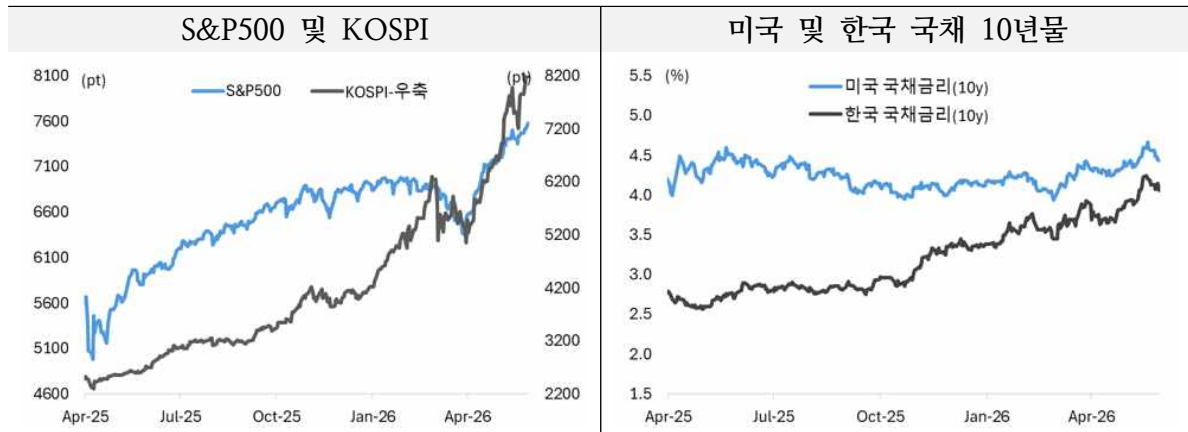
- 국제에너지기구는 금년 천연가스 프로젝트 투자액이 3,300억달러 규모로 전년비 10%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. 반면 원유 관련 투자는 감소할 전망이며, 주요국이 중동전쟁 이후 에너지원 다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분석

주요 경제지표

■ 다음주 주요 경제 이벤트(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, 유로존, 일본 등 S&P 제조업 PMI(1일), 유로존 CPI(2일), 미국 비농업고용 및 실업률(5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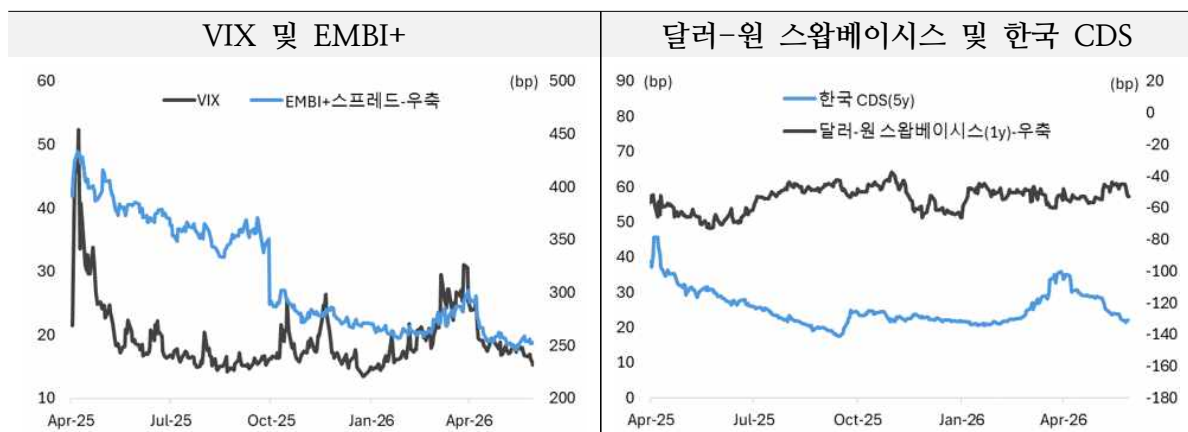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31, E-mail jgbaek@kcif.or.kr